

**담당 : 홍보팀 김균섭 사원ㅣ E-mail : media@klpga.org**

**‘2025 오로라월드 레이디스 챔피언십’**

**우승자 배소현 관련 기록 및 코멘트**

**◈ 대회개요**

|  |  |  |
| --- | --- | --- |
| 1 | 대 회 명 | 2025 오로라월드 레이디스 챔피언십 |
| 2 | 기 간 | 2025년 7월 31일(목) ~ 8월 3일(일) |
| 3 | 장 소 | 오로라 골프&리조트 [마운틴(OUT) / 레이크(IN)] |
| 4 | 주 최 | 오로라월드(주) |
| 5 | 주 관 |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
| 6 | 총 상 금 | 10억 원 (우승상금 1억 8천만 원) |
| 7 | 코스길이 | 파72 / 6,509야드 |
| 8 | 참가인원 | 120명 |
| 9 | 주요  출전선수 | 이예원, 고지우, 노승희, 김민선7, 김민주, 이가영, 박혜준, 박보겸, 유현조  박지영, 한진선, 김시현, 송은아, 정지효, 박민지, 김소이, 성유진, 김수지  김도희(A), 김지영2 등 |
| 10 | 중계방송 | SBS골프, 네이버, 다음카카오, U+모바일tv |
| 11 | 방송일정  (생중계) | [1라운드] 11시 ~ 17시  [2라운드] 11시 ~ 17시  [3라운드] 10시 ~ 16시  [최종라운드] 10시 ~ 16시 |

**◈ 배소현 최종합계 19언더파 269타(71-66-65-67) 우승**

**[상세 프로필]**

<https://klpga.co.kr/web/profile/mainRecord?playerCode=8589>

**[배소현 주요 기록]**

**- 2025 KLPGA 정규투어 첫 번째 우승(통산 4회 우승)**

\* (2025) 2025 오로라월드 레이디스 챔피언십

\* (2024) 제13회 KG 레이디스 오픈

\* (2024) 더헤븐 마스터즈

\* (2024) 제12회 E1 채리티 오픈

**- 2025시즌 우승자 리스트**

\* 3승: 이예원

\* 2승: 방신실

\* 1승: 박보겸, 김민주, 김민선7, 홍정민, 박현경, 정윤지, 이가영, 이동은, 노승희, 고지우, 박혜준, **배소현**

**[배소현 타이틀 순위]**

- 위메이드 대상포인트 20위(129점) \*기존 34위(59점) → 20위(129점)

- 상금 순위 12위(371,122,521원) \*기존 27위(191,122,521원) → 12위(371,122,521원)

**\*2025시즌 기록**

텍스트, 스크린샷, 번호, 평행이(가) 표시된 사진

AI 생성 콘텐츠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 기록**

텍스트, 스크린샷, 폰트, 번호이(가) 표시된 사진

AI 생성 콘텐츠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승자 인터뷰]**

**우승 소감?**

오로라 챔피언십 지난주 수요일 한국 들어와서 디오픈 갤러리 쉬어본 것 처음이라 걱정이었는데 시야를 넓힌 경험해서 기대도 됐다. 예선 통과 목표를 두고 경기에 임했는데 우승하게 돼서 기쁘다.

**코스가 장기인 장타가 발휘되기 힘든 곳이었지 않았나?**

그렇다. 드라이브 못 치는 파5도 있었다. 아이언과 퍼트로 승부봐야 하는 코스였는데, 이번에 아이언을 바꾸고 나온 게 주효했다. 타이틀리스트 아이언을 쓰는데 신형 나오자마자 받아왔다. 디오픈 가기 전에도 안쳐보고 코스에서 처음 쳐봤는데 마음에 들어서 바로 가지고 나왔다.

**모델명?**

신형 T100이고 4번은 T200이다. 어제 170미터 넘게 남은 상황에서 4번 아이언 쳤다. 평상시 치던 4번 아이언보다 탄도 높게 나오고 스핀 잘 나와서 버디 찬스 만들었다. 클럽 잘 바꾸고 왔다고 생각했다.

**역전 우승하기까지 결정적인 순간을 꼽는다면?**

어제 9번 홀에서 기록한 샷 이글이라고 생각한다. 분위기를 반전시킨 이글이었다. 그 이글이 선두 경쟁에 뛰어들게 만들었고, 덕분에 마음을 다잡아 플레이할 수 있었다.

**72홀 스트로크 플레이 첫 우승이었는데?**

올해 목표 중에 하나가 작년에 3라운드 대회에서만 우승해서, 올해는 4라운드 대회에서 우승하는 거라 말하고 다녔는데 이번에 이뤄내서 기쁘고 특별하다.

**신설 대회와도 인연이 있는데?**

있는 것 같다. 많은 대회가 새로 생겼으면 좋겠다.(웃음)

**지난주 디오픈 갤러리 다녀왔는데 경험과 느낀점?**

중심축이 흔들리는 선수들이 없어서 그 부분을 캐치해서 적용했다. 1라운드 때는 스스로 어색했는데 2라운드부터 자신감있게 쳐보겠다 생각했다. 그리고 원래 골프가 실력과 운이 5:5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보면서 선수의 영역이 더 많구나 싶었고 내가 골프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고 느꼈다.

**영감을 얻은 선수?**

로리 맥길로이와 스코티 셰플러다. 맥길로이는 북아일랜드 출신이고 고향에서 플레이했는데, 처음 고향에서 플레이할 때 부담 됐다는 인터뷰를 보면서 ‘이렇게 대단한 선수도 압박과 부담을 갖는구나, 나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스코티 셰플러의 경우는 연습하는 루틴이나 기본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했다.

**더웠는데 혹서기 대응 어떻게 하고 있나?**

여름 다가오면서 목에 착용하는 아이스 쿨러를 구매해서 샷 할 때만 제외하고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교정 때문에 음식을 잘 못 먹고 있어서 마실 수 있는 것을 어머니가 챙겨 주신다. 열감 식힐 수 있는 것들 챙겨 주셔서 감사하다.

**하반기 목표가 있다면?**

일단 가장 가까운 일정인 메인 스폰서 대회 ‘메디힐-한국일보 챔피언십’에서 좋은 성적 내는 것이 1차 목표라 다음주는 쉬기로 결정했다. 하반기에 타이틀 방어도 하고 싶고, 메이저 대회에서도 좋은 모습 내고 싶다.

**18번 홀 파 퍼트 때 무슨 생각했나?**

경기 흐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다 보니 흐름을 놓쳤을 때 실망을 많이 하게 되더라. 실망감이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 2라운드 부터는 ‘다음에 떨어지겠지’ 생각하고자 했다. 마지막 홀에서는 ‘라인 제대로 봤고, 터치만 제대로 하자. 들어가면 우승이고 안들어가면 연장이지 뭐’ 하는 생각이었다.

**투어에서 고참격에 속하는데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난 어렸을 때부터 골프만 생각하기 보다는 좋아하는 것이 뭔지도 생각해보고 경험해보고 했다. 골프에만 너무 몰두하기 보다는 스스로의 인생에 대해서도 생각하면 좋겠다. 그리고 선수로서는 부상이 없는 것이 중요하다. 나도 부상을 크게 겪은 경험이 있는데, 후배들도 부상의 위험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전시나 공연을 보기 시작했다. 골프도 운동이라 기초체력, 트레이닝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싶다.